

옥동교회 청소년 수련회 이야기

엄 용 식 (목사, 함양 옥동교회)

들어가며

제가 옥동교회로 부임해 온 것은 1985년입니다. 벌써 햇수로 25년이 됩니다. 옥동교회는 1976년에 개척되어 필자가 4대 목회자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느 농촌교회와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2-3년 있다가 떠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졌던 시절입니다. 9년 만에 세 분이 다녀갔습니다.

이삿짐을 풀고 다음날 교회 뒤에 있는 화장산 정상에 올라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한 것처럼 “이 땅을 제게 주십시오. 이곳에 저의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서원 고백을 하였습니다. 농촌 목회는 정주목회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지에 키스를 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이렇게 제 첫 목회가 출발된 것입니다.

한 주간을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농촌목회, 거기다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필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범적인 교회를 건축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

데 필자에게 이리저리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을 곳곳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청소년을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 성장에는 제일 빠른 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앞에 비어있는 집을 수리해서 공간을 만들고, 합판을 잘라서 책상을 만들어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칭찬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제일 적당한 방법이 수련회를 통하여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판단이었다는 것이 그 후 증명되었습니다.

옥동교회의 현재 출석교인 수는 장년이 80여명 인데 그 중 반 정도가 젊은이들입니다. 현재 예배 출석 현황을 보면 주일 낮에는 60-80명 정도, 주일 오후에는 약 40-60명 정도, 수요일기도회는 25-40명 정도, 새벽기도회는 15-2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17명,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30여명 나오고 있습니다.

리 단위에 있는 작은 농촌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을 훈련시킨 결과 그들이 하나 둘씩 정착하여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80여 명의 교인 가운데 40여 명이 젊은이들입니다. 주변 농촌교회의 현실은 젊은이가 한 두 사람 간신히 교회에 남아 있는 정도인데, 옥동교회는 특이한 일이 분명합니다. 농촌 교회의 평균 연령이 60-70세인 것이 주변의 형편인데, 필자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젊은 교회로 만든 것입니다.

옥동교회의 학생들 교육은 수련회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필자가 1985년에 부임한 이래 1986년부터 겨울, 여름 수련회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가졌습니다. 많은 경비가 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코 수련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비 문제에 있어서 교회예산에서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역에서, 기관에서 협력을 해 주었고, 먼저 학생회를 거쳐 간 선배들이 타 지역에 있으면서 후배들을 위하여 5만원, 10만원씩 찬조를

하였고 이것이 어느덧 전통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가운데 수련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목표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교회와 삶을 꿈꾸게 하였습니다. 7 가지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특히 가정과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음을 인식하여, 분명한 신앙고백을 가정 속에 나타내야 할 것이다.

②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치유공동체

주일의 교회와 월요일의 직장이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최대 약점이다. 가정과 사회에서 어둠과 싸우며 갈등하는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것이다.

③ 교회와 사회를 위한 봉사공동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며, 이것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어떤 곳에든 봉사해야 한다. 온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머리인 그리스도의 뜻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④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비전공동체

새로운 시대 신앙의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하며,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한다. 전체 어린이와 학생들 가운데 재질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양성한다.

⑤ 농촌을 통하여 시대를 이끄는 생명공동체

농촌에 사는 농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농촌과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구태의연한 관습과 열등의식에서 자유하게 하며, 새로운 농촌에 도전하여 이상적인 농촌을 건설토록 한다.

⑥ 절약과 절제로 환경공동체

이 시대가 더 많은 물질의 소유와 소비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으며, 삶의 행복을 물질의 소유로 인한 안일에 두고 있으므로 엄청난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그 결과 자연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환경오염으로 지구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약과 절제로 검소하게 살며 나눔을 목적으로 산다.

⑦ 시민운동을 통한 개혁공동체

기독교에 있어서 종교개혁이후 가장 큰 운동은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두 가지 큰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분열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자는 교회 일치 운동이요, 다른 하나는 전 세계에 대하여 기독교인의 책임을 다하자는 교회의 대 사회적 운동이다.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강조점을 두는 것은 소위 책임 사회라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책임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다하자는 것일까? 첫째로 땅위에 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 만들자는 것, 둘째는 각 사람이 그 이웃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 만들자는 것, 셋째는 정치적 기구나 경제적 조직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회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앞에 서서 시대를 이끌고 가는 개혁의 주체세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수련회는 겨울수련회와 여름수련회를 했습니다.

1. 겨울 수련회

겨울 수련회는 영성수련회입니다. 대부분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야말로 교회에서 부족했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이고, 학생들의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공동체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추상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 할 수 있는지 깨닫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훈련했습니다.

1) 자체 수련회

자연 휴양림이나 수련관, 기도원, 교회 등을 빌려서 수련회를 가졌고, 때로는 외따로 떨어진 산 속으로 들어가 혹독한 훈련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① 새벽집회 : 새벽의 영성집회는 학생들의 영혼을 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정성을 드려 말씀을 전했습니다.

② 새벽구보 및 운동 :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추운 겨울에 밖으로 나가 구보하고, 계곡으로 들어가 얼음을 깨고 세수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③ 성경통독 : 구약, 신약으로 나누어 통독을 하면서 목회자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주었고, 66권의 성경가운데 한 권의 성경이 끝날 때마다 중, 고등부로 나누어 퀴즈대회를 열어 점수를 매겨 마지막 날에 도서 상품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④ 신앙서적 매일 한 권씩 읽기 : 내용이 좋은 소책자를 택하여 미리 복사해서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고 매일 한 권씩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잠자기 전에 읽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⑤ 성경강해 : 성경 가운데 적은 분량의 책을 택하여 4일간 집중적으로 목회자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⑥ 일기 쓰기 : 매일 하루를 보내면서 받은 은혜를 일기에 기록하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전체가 모여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발표력도 생기고, 말을 조리있게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말을 주의해서 듣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⑦ 분반학습 : 선생님들의 몫인데 미리 공과를 준비하여 나누어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⑧ 농촌 문제 연구 : 현재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나누며 농촌이 살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가능하다면 농촌에 남을 수 있도록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⑨ 공동체훈련 : 학생들은 몇 개의 모둠으로 나누고 식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청소, 모듬 발표, 수련회 장소로 이동 등 모든 것을 모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서로를 섬기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자신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가정에서 어머니께서 해 주는 밥을 먹고, 농사일도 부모님이 다 하셔서 물 한 번, 흙 한 번 만져보지 않은 아이들이 훈련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면 가르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⑩ 산행 : 매 수련회 기간 동안 한 날을 택하여 눈 덮인 산을 올라갔습니다. 학생들을 산으로 이끌며 자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⑪ 하루의 일을 나누기 :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반드시 모두 모여 하루 동안 지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⑫ 교회에 돌아와서 그 주일 오후에 수련회를 다녀 온 간증을 모두 나와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앙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수련회 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능력을 잘 기를 수 있었습니다. 힘든 훈련이었지만 학생들이 잘 참고 견뎌 준 것은 여름에 나가는 문화 기행 때문입니다.

2) 영성집회 참석

교계에서 진행하는 좋다는 영성집회에 열심히 참여 하였습니다. 먼저 신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아래 신앙을 무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전가화 목사의 ‘믿음의 집’ 을 몇 차례 다녔습니다. 그 후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집회, 기도원 집회, 각종 청소년 집회 등을 찾아 다녔습니다. 이런 것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농촌에서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가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전혀 다른 성격의 집회를 통하여 다양한 신앙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있는 집회도 많이 있었지만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항상 밤에 모여 하루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신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3) 기도 훈련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수련회 때마다 기도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통성기도, 개인기도, 중보기도, 짝기도 등의 훈련을 통하여 기도를 생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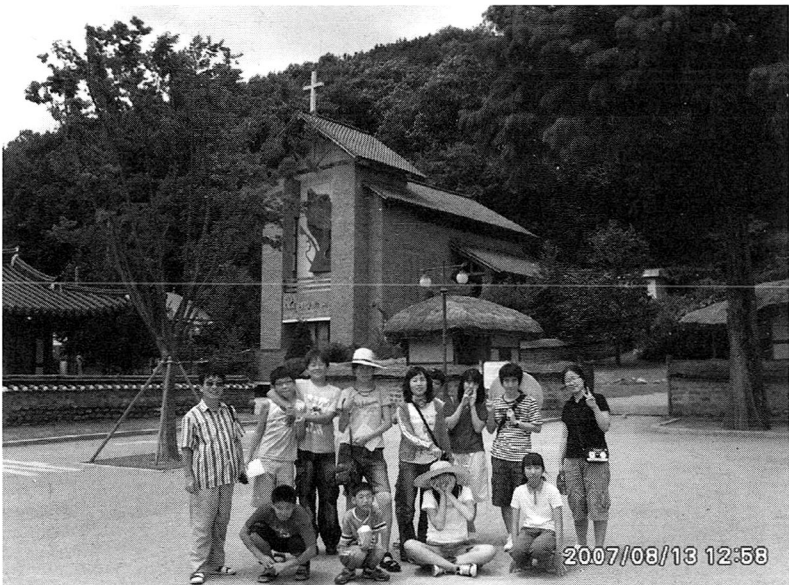
2. 여름수련회

1) 문화기행

여름에는 지리산을 종주하기도 하고, 매년 한 도(道)씩 정하여 문화기행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상도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라도에 대한 거부감을 은연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문화기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전라북도의 동학혁명 근거지를 살펴보며 한국 근대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반응이 좋아 다음으로 전라남도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매 년 한 도씩 정하여 지금은 한국의 모든 도를 다 돌았고, 의미 있는 곳이나 경치 좋은 곳은 학생들이 다 다녀 보았습니다.

한 예로 어떤 학생이 마산으로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환경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새만금 간척지에서 천막을 치고 4일간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으로 글을 썼는데 전체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글이 대상을 받은



3:1운동의 매봉교회 앞에서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 기쁨을 필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사님의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체험한 경험은 살아있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내용이 자신들이 다녀 온 것이기 때문에 신기해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많이 활용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깜짝 놀라곤 합니다.

① 전라남도를 다닐 때의 프로그램의 예

8월 7일(월) : 순천 - 애항원 - 낙안읍성 - 보성 - 차밭 - 울포해수욕장

8월 8일(화) : 고흥 - 소록도 - 강진 - 영랑생가 - 다산 초당 - 해남 - 녹우당 - 달마산과 미황사 - 송호 해수욕장

8월 9일(수) : 보길도 - 부용동 정원 - 예송리 상록수림 - 중리해수욕장 - 토말 - 장도 청해진 유적지 - 진도 - 우수영 국민관광단지 (울돌목) - 신비의 바닷길 - 운림산방

8월 10일(목) : 영암 - 월출산 - 목포 - 유달산 - 광주 - 망월동 5·18묘역 - 소재원 - 담양 - 죽물박물관 - 죽녹원

② 준비 사항

핸드북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냥 물려다니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것 만큼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의미를 찾고 역사를 통하여 오늘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쪽이 넘는 책자를 만들어 미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읽고 수련회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목회자는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가는 곳마다 학생들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가두어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더불어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③ 영성 부분

이렇게 될 때 영적이 부분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벽 시간과 저녁 영성집회를 잘 준비 하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니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교회에서 간증할 때 보면, 다른 기도원 부흥집회나 청소년 집회를 갔다 오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는 학생들이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④ 시 기

여름 수련회는 8월 중순경으로 정했습니다. 학생들을 훈련하는데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복잡하면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만 한 적하게 있을 수 있는 기간을 택하여 훈련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이 때 가면 모든 것에서 경비가 절약됩니다. 대부분 해수욕장도 파장을 한 때이고, 민박도 통제로 얻을 수 있고 가격도 매우 싸입니다.



5-18 광주항쟁 망월등 묘역에서

2) 지리산 종주

3년에 한 번씩 지리산을 종주하였습니다.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산장을 예약하여 시작했습니다. 이런 극기훈련은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이기는 훈련입니다. 종주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4일 동안 계속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종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성숙할 수 있었고, 아주 친밀한 동지 의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도 지리산을 종주할 때의 정신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자연을 아름답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리산을 다니면서 곳곳에 피어 있는 야생화의 고고한 자태와 향기는 잊을 수 없습니다. 바위와 나무가 어우러진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세석 산장에서 바라 본 별자리는 학생들이 두고두고 잊지 못합니다.

셋째는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서로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힘든 학생들의 배낭을 대신 짊어지고, 부족한 식사와 간식을 서로 나누며 부상당한 사람을 서로가 돕습니다. 참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3) 산행

수련회 기간 중 지나가는 지역 가운데 명산이 있으면 반드시 산행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방학 기간에 산행을 계획합니다. 나무나 꽃 등의 이름을 알아가고, 자연의 소중함을 온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저보다 더 많은 꽃과 나무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일체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4) 농촌교육

주변의 농촌에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는 공동체나 교회 등을 찾아다니며 현장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농촌에 남도록 권유하였고, 특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모 교회에 호도하라고 가르침으로서 서울, 대구, 부산 지역 등 고향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승합차와 복사기를 사 주는 등 초창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5) 생태수련회

꽃잎과 나뭇잎을 뜯어 비빔밥 해먹고, 갯벌에 나가 생명의 충만함을 발견하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를 생각합니다. 생명과 환경을 위하여 싸우는 현장에 가서 왜 저 분들이 온 몸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작은 것을 실천하며 환경 과수꾼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가며

옥동교회는 청소년 수련회를 통하여 성장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자라 지리산 생명연대, 지리산 환경연대, 함양시민연대 회원이 되어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지도자가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 성장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겸손한 리더쉽, 좋은 평신도들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련회는 한 두 사람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옥동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좋은 다만 수종든 것뿐입니다. 農